

전라남도 코로나19 주간소식 특집12호

21 주차

(2020.05.18.~2020.05.24.)

발행일 2020. 05. 26.(화) 발행처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소 전남도청 내 민원동 3층 전라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 전화 061-282-2959 홈페이지 www.jcdm.or.kr

— 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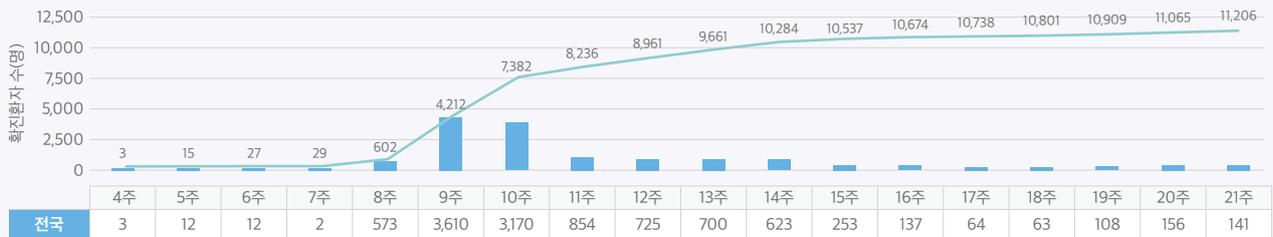
- I.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II. 코로나19 해외유입 현황
- III. 코로나 19 해외 발생 현황
- IV. 코로나19 관련 주간 정책동향
- V. 주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 VI. 코로나19 칼럼

I.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5일 0시 기준)

확진환자 현황

- (전국) 확진환자 총 11,206명으로 21주차 신규 확진환자 141명 발생, 지난주 대비 완치자는 10,226명으로 322명 증가, 사망자는 267명으로 4명 증가
- (전남) 확진환자 총 18명으로 21주간 신규 확진환자 발생 없음, 649명의 접촉자 중 623명은 격리 해제되었으며 26명은 현재 격리 중에 있음
- (광주) 확진환자 총 30명으로 21주차 신규 확진환자 발생 없음, 1,216명의 접촉자 모두 격리 해제됨

■ 전국 (주별, 누적)



■ 광주·전남 (주별, 누적)



- 전남 시·군별 발생현황: 목포시 6명, 여수시 4명, 순천시 2명, 나주시 1명, 광양시 1명, 화순군 1명, 영암군 1명, 무안군 2명

· (지역별)

단위: 명(전주대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검역
확진환자	774 (+38)	144 (+0)	6,874 (+3)	144 (+20)	30 (+0)	45 (+1)	50 (+5)	47 (+0)	519 (+18)
(%)	6.91	1.29	61.34	1.29	0.27	0.40	0.45	0.42	4.63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확진환자	766 (+42)	56 (+1)	59 (+0)	145 (+1)	21 (+1)	18 (+0)	1,377 (+9)	123 (+2)	14 (+0)
(%)	6.84	0.50	0.53	1.29	0.19	0.16	12.29	1.10	0.12

· (치명률)

- 국내 확진환자 11,206명 중 사망자는 267명으로 치명률 2.4%
- 현재 기준 광주·전남 사망자 없음

단위: 명(%)

구분	합계	해외유입	집단사례					개별사례 또는 조사중
			신천지 관련	집단발병	확진환자 접촉자	해외유입 관련	소계	
전국	11,206	1,215 (10.8)	5,212 (47.1)	2,337 (20.9)	1,239 (11.1)	158 (1.4)	8,946 (79.8)	1,047 (9.3)
전남	18	10 (55.6)	1 (5.6)	1 (5.6)	2 (11.1)	1 (5.6)	5 (27.8)	3 (16.7)
광주	30	14 (46.7)	9 (30.0)	0 (0.0)	1 (3.3)	6 (20.0)	16 (53.3)	0 (0.0)

· (전국)

-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은 해외유입 82명(27.6%), 지역 집단발병 186명(62.6%), 조사중 21명(7.1%) 등으로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밀폐되고 밀집된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
- 5.25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는 총 237명으로 5차 전파 사례 7명, 6차 전파 사례 1명이며, 현재 기준 광주·전남 관련 확진자 없음

II. 코로나19 해외유입 현황 (5월 25일 기준)

해외유입 환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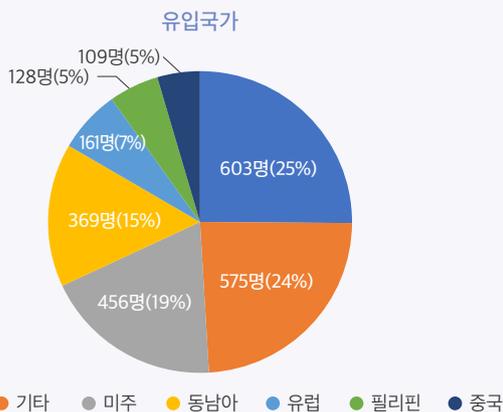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주대비 신규	누계	비율
합계	48	1,215	100%
유입국가	중국	19	1.6%
	중국외 아시아	202	16.6%
	유럽	469	38.6%
	미주	516	42.5%
	아프리카	8	0.7%
	호주	1	0.1%
국적	내국인	1,072	88.2%
	외국인	143	11.8%

전남 임시검사시설

· 해외 입국자 입소현황

- 4월 1일 ~ 5월 22일 총 2,422명 입소
- 2,373명 검체 검사 결과 음성 2,371명, 양성 2명(18주차 쿠웨이트발 내국인 1명, 20주차 미국발 내국인 1명)



III.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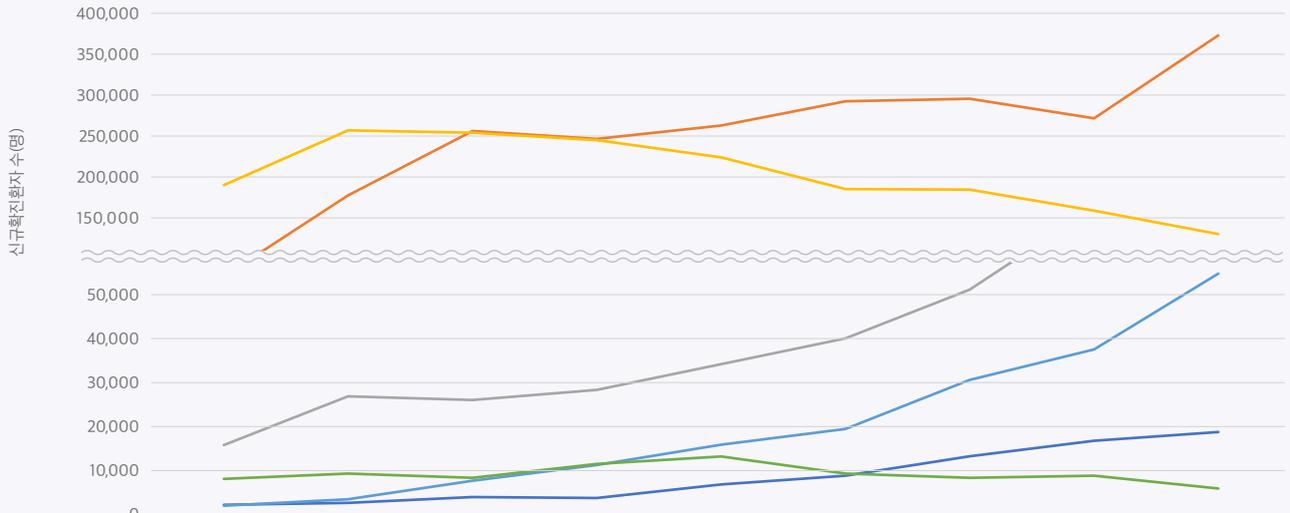
전세계 발생 현황

(출처: WHO Situation Report (5월 24일))

· 전세계 누적 확진환자 총 5,204,508명, 사망 337,687명(사망률 6.5%)

- (아메리카) 2,338,124명 발생, 138,116명 사망(사망률 6.0%)
- (유럽) 2,006,984명 발생, 173,886명 사망(사망률 8.7%)
- (중동) 415,806명 발생, 10,988명 사망(사망률 2.6%)
- (동남아시아) 191,996명 발생, 5,748명 사망(사망률 3.2%)
- (서태평양) 173,621명 발생, 6,863명 사망(사망률 4.0%)
- (아프리카) 77,295명 발생, 2,073명 사망(사망률 2.7%)

· WHO 지역별 주별 신규 확진자 동향



	13주	14주	15주	16주	17주	18주	19주	20주	21주
아프리카	2,297	2,615	3,876	3,765	6,753	8,479	12,597	15,917	17,795
아메리카	81,437	179,237	257,121	247,639	263,758	293,080	296,250	272,642	373,005
중동	16,012	27,006	26,261	28,457	34,288	40,020	51,031	69,646	87,251
유럽	195,806	258,813	256,116	247,722	227,806	191,165	190,510	166,108	139,212
동남아시아	2,106	3,443	7,633	11,130	15,782	19,417	30,318	37,187	54,283
서태평양	7,970	8,919	8,187	10,707	12,218	8,934	8,142	8,543	5,975

· 발생 상위 10개국

단위: 명(전주대비*)

순위	국가 및 지역	확진환자	사망자	사망률(%)
1	미국	1,568,448 (+158,996)	94,011 (+8,151)	6.0
2	러시아	344,481 (+62,729)	3,541 (+1,180)	1.0
3	브라질	330,890 (+112,667)	21,048 (+6,231)	6.4
4	영국	257,158 (+16,993)	36,675 (+2,209)	14.3
5	스페인	235,290 (+4,592)	28,678 (+1,115)	12.2
6	이탈리아	229,327 (+4,567)	32,735 (+972)	14.3
7	독일	178,281 (+3,926)	8,247 (+333)	4.6
8	터키	155,686 (+7,619)	4,308 (+212)	2.8
9	프랑스	142,173 (+2,165)	28,281 (+703)	19.9
10	이란	133,521 (+15,129)	7,359 (+422)	5.5
...				
45	한국	11,190 (+140)	266(+4)	2.4

*확진환자 및 사망자 괄호 안의 숫자는 전주 대비 증감(5월 17일~5월 24일)

· 미국

- 국립보건원, 대화를 통해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 8~14분 머물 수 있다고 발표
- 연준, 공개된 4월 FOMC 의사록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과 2차 대유행 우려
- 질병통제예방센터, 경제 재개 지침서 발표 (데이케어, 학교, 사업체, 식당, 대중교통 재개 위한 구체적 지침 제공) * 6피트(1.8m) 유지를 위해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바닥에 컬러 테이프 부착 방안도 포함
- 보건복지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 코로나19 백신개발 최대 12억 달러 지원, 여름부터 미국 내 3만 명 대상 임상 3상 허가(개발시 최소 3만정 생산 가능, 효과 입증시 10월 초부터 공급)

· 브라질

- 상파울루 시내 중환자실 병상 점유율 90% 초과
(공공병원 입원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약 1,900명으로 이중 491명이 중환자실 입원 중)
- ANVISA(위생감시국) 국장 코로나19 확진 판정

· 영국

- 5세 이상 모든 코로나19 증상에 테스트 시행 예정
- 6.1일부 휴교령 해제에 약 1,500개 초등학교 반대

· 스페인

- 보건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표
(대중교통 이용시 의무(5.4)→실내 전역 의무, 실외 2미터 간격 유지 불가능 시 의무)

· 독일

- 지방정부 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 학급을 2~3개 소그룹으로 분리해서 소그룹별 교차 등교, 학년별 격주 등교와 가정 학습 병행, 자율 등교 실시

IV. 코로나19 관련 주간 정책동향

보건복지부

·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발표

- (버스, 택시)
 -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 면제
- (철도·도시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 실시
- (항공)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5월 27일)

· 클럽 등 유흥시설 'QR코드 출입명부' 도입

-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 도입 추진(6월)
- (대상) 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
- (기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일 때로 제한적으로 적용

·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 발표

- 클럽 등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위험도에 따라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적용
- (대상)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 (내용)
 - 사업주: 출입자 명단 작성·증상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
 - 이용자 수칙: 명단기재(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증상확인 협조 등

· 가족 구성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출생년과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동거인 포함)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확인)을 지참 후 판매처 방문하여 구매가능
- 매주 3개 한도로 분할 구매 가능(구매 가능 요일과 주말에 나누어 구매)

· **KTX 광명역에 해외입국자 종합정보센터 운영**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파견 중인 지자체 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각 지역별 업무 수행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KTX 광명역에 종합정보센터 운영(5월20일)
- (운영)
 - 입국자별 세부 수송정보(이름, 연락처, 자차이동여부, 하차역, 최종목적지 등) 파악하고, 지자체에 통보
 - 상시적으로 6명의 전담인력(총12명, 2교대)이 상주하여 지원업무 수행할 예정
- (예외)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기존 체계 유지

전라남도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기간 연장**

-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기간 연장
- (기간) 5월 12일~5월 24일 → 5월 12일~6월 7일
- (대상) 도내 유흥주점(클럽) 4개소, 콜라텍 14개소
- (내용)
 - 집합금지 대상 시설 즉시 영업 중지
 - 위반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광주광역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음식문화 추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음식문화 개선
- (내용)
 - 광주 내 일반음식점, 카페 등 대상 투명위생마스크 10만개 제공
 - 비대면 결제 시스템 및 결제 창구 투명간막이 설치 지원, 집게·국자·개인접시 비치 및 제공, 테이블 간 일정거리 확보, 정기적 방역 실시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안내 예정

· **코인노래방 특별점검**

- 초·중·고교 등교 개학에 따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에 대해 시 교육청과 합동하여 특별점검 실시
- (대상) 관내 코인노래방 74곳
- (기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 (내용)
 -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전달, 방역수칙 여부 확인
 - 코인노래방 방역관리자 책임자에게 마이크 커버 충분히 비치하기, 방문자 명부 작성 안내하기, 물건 소독하기 등 준수 요청

V. 주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전라남도

- 수두 14건, 유행성이하선염 5건, 성홍열 1건, CRE 11건, C형간염 12건, 쯔쯔가무시증 2건, 렙토스피라증 1건, 신증후군출혈열 2건 발생

국내·외

- (코로나19) 전세계 판데믹 상황 유지
- (메르스) 사우디아라비아 4월 첫째주 이후 환자 발생 없음
- (에볼라) 4월 10일 ~ 5월 3일 DR공고 북키부주 베니 지역에서 총 7명(사망 4명) 발생이후 추가 확진 없음
- (크리미안공출혈열) 러시아 '20년 첫 번째 환자 발생 보고
- (폴리오) 전세계 환자발생 지속으로 WHO PHEIC 선포유지('20.4.8)

※ **바로가기** ▶ [주간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21호](#)

전라남도 신고현황

구분	주간현황 (2020)						누적신고현황 (21주)					지난해 신고현황			
	이번주	이전 4주(2020)					증감 ¹⁾	올해 2020	이전 3년			증감 ²⁾	2019년		
		21주	20주	19주	18주	17주			2019	2018	2017		증감2)	광주	전국
1급	보툴리눔독소증	0	0	0	0	0		0	0	0	0		0	0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0	0	0	0	0		0	0	0	0		0	0	0
2급	결핵	-	25	23	22	23	-	489	534	579	576	▼	1,295	578	23,821
	수두	14	18	23	15	13	▼	623	1,315	1,183	1,270	▼	3,110	3,043	82,466
	홍역	0	0	0	0	0		1	6	1	0	▼	11	2	193
	콜레라	0	0	0	0	0		0	0	0	0		0	0	1
	장티푸스	0	0	0	0	0		0	1	2	1	▼	2	0	94
	파라티푸스	0	1	0	0	0	▼	3	0	3	0	▲	0	3	55
	세균성이질	0	0	0	0	0		0	4	4	0	▼	10	4	14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	0	2	0	1	▼	5	6	1	3	▲	13	9	147
	A형간염	0	0	0	0	1	▼	20	59	19	69	▼	163	161	17,584
	백일해	0	0	0	0	0		20	17	8	2	▲	33	28	493
	유행성이하선염	5	12	10	8	4	▼	154	241	298	349	▼	617	466	15,947
	풍진	0	0	0	0	0		0	1	0	0	▼	1	0	8
	수막구균감염증	0	0	0	0	0		0	0	0	0		0	0	16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0	0	0	0	0		1	0	0	0	▲	0	0	0
	폐렴구균 감염증	0	0	0	0	0		7	6	13	2		13	8	527
	한센병	0	0	0	0	0		1	0	0	0	▲	0	0	3
	성홍열	1	2	3	0	0	▼	70	121	368	314	▼	238	398	7,563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0	0	0	0	0		0	0	0	0		0	0	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11	8	9	6	2	▲	139	121	53	0	▲	349	179	15,245
	3급	파상풍	0	0	0	0	0		0	1	2	2	▼	2	2
B형간염		0	0	0	0	1	▼	8	7	6	2	▲	19	6	384
일본뇌염		0	0	0	0	0		0	0	0	0		2	2	34
C형간염		12	13	14	8	21	▼	332	296	409	0	▲	686	222	9,783
말라리아		0	0	0	0	0		0	0	0	0		0	4	559
레지오넬라증		0	0	0	0	1	▼	7	4	1	1	▲	17	14	497
비브리오패혈증		0	0	0	0	0		0	0	0	0		7	0	42
발진열		0	0	0	0	0		0	0	1	0	▼	1	1	14
쯔쯔가무시증		2	9	4	3	3	▼	61	85	171	85	▼	665	79	3,993
렙토스피라증		1	0	0	0	0	▲	2	1	1	3	▲	13	4	137
브루셀라증		0	0	0	1	0	▼	2	0	0	0	▲	0	0	1
신증후군출혈열		2	0	0	0	1	▲	9	19	11	14	▼	76	8	400
크로이츠펠트-야콥병		0	0	0	0	0		0	1	0	1	▼	4	1	52
댕기열		0	0	0	0	0		1	1	2	0		1	3	274
큐열		0	1	2	0	0	▼	9	7	7	1	▲	23	8	162
라임병		0	0	0	0	0		0	2	0	0	▼	2	0	23
유비저		0	0	0	0	0		0	0	0	0		0	0	8
치쿤구니아열		0	0	0	0	0		0	0	0	0		1	1	1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0	0	0	0	0		0	0	1	1	▼	16	1	22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0	0	0	0	0		0	0	0	0		1	0	3

1) 이전 4주 신고건수 중 최댓값 대비, 2) 이전 3년 평균 신고건수 대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됨
- 의료기관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함
-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 (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감염병 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포함 될 수 있음
- 21주(2020.05.17~2020.05.23.) 감염병 신고현황은 2020.05.25.(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2019년, 2020년 통계자료는 변동가능한 잠정통계임
- 최근 5년간 발생이 없었던 감염병은 제외함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
- 결핵은 20주(2020.05.10~2020.05.16.) 신환자 신고 현황을 수록한 질병관리본부 주간건강과질병 및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를 참고함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동네병의원 -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막아야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 의사회장
이필수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4월 말 현재 확진자 수 300만 명에 사망자 수도 20만 명을 넘기면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를 경험하는 초유의 감염병 재난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5월 15일 0시 기준 확진자가 11,000명을 넘어섰다. 3월 들어 절정을 이루던 코로나19는 4월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5월 초 이태원 발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확산 기미를 보인다. 동네 병·의원들도 2월부터 환자 및 매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3월 들어 피크를 이루었다. 4월 들어 회복의 조짐을 조금 보이다가 5월 초 이태원 발 코로나19 환자 다수 발생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인다.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대구·경북·광주·전남 4개 지역의 352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한 긴급 경영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동네 의원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3월 기준 매출은 44.2%나 감소하였으며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도 3월 매출이 35.1% 감소했다. 중소병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평균 외래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3월 평균 88.9명 감소(-33%)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입원환자 수도 지난해 3월과 비교해 평균 8.5명 감소(-24.8%)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와 환자 및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병·의원은 그동안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금번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당뇨, 고혈압 등 일반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래진료를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이나 민간 상급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자 그 지역 개원의를 중심으로 많은 의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검체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센터나 치료전담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동네 병·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한 가운데 금번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급격하게 내원환자와 매출이 감소하면서 이제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문제가 심각해지자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9일의 1차 회의에서 50조 원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후 3월 24일 2차 회의에서는 그 규모를 100조 원으로 늘렸다. 그것도 부족해서 4월 8일 4차 회의에선 수출 기업을 위한 3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1차 의료의 근간이자 코로나19 전쟁의 든든한 방패가 되는 동네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너무 부족하다.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4,000억 원(20년 추경편성)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4,000억 원의 추경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외

료비는 8%가 넘는 규모다. 이처럼 보건의료산업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지원하는 금액도 100조 원의 8%인 8조 원 규모로는 못될지언정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정도는 지원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매출 감소에다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오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거기에다 줄줄이 오른 임대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관리운영비도 만만치 않다. 거기에다 오는 5월 말 납부 예정인 개인 종합소득세를 생각하면 더 이상 추가 차입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은 벌써부터 한숨만 나온다.

정부는 지금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네 병·의원의 폐업 쓰나미를 막아서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차 지원금보다 더 많은 추가 지원 자금을 조속히 확정 투입하여 동네 병·의원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대 보험료 납부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오는 5월 말로 예정된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기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늦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았지만 이미 중환자실 수가를 2배로 인상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대구 동산병원의 손실금 보전마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료 기관의 손실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감염 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를 신설하고 방호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2차 팬데믹을 대비해야 한다. 끝으로 각종 공공요금의 감면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의 선지급대상에서 메디칼론을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들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이다. 동네 병·의원의 몰락은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만큼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